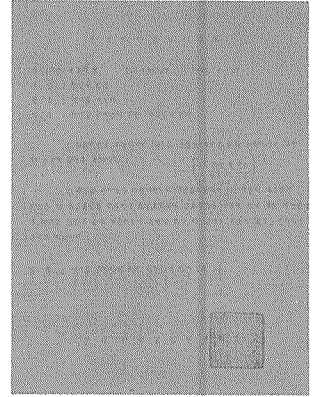


자동화·정보화 촉진의 애로요인 및 건의



'91. 6. 25 상공부 건의

편집자 주 본회는 전자산업의 최대 현안인 자동화·정보화 촉진의 애로요인(6월25일), 유통시장개방(6월24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가전업계 의견(6월19일) 등 대정부 건의를 한 바 있다. 이에 건의 내용을 전제한다.

자동화·정보화 촉진의 애로요인 및 건의

항 목	애 로 요 인	대 책 건 의
자금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자금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를 향상목표 : '91년 48%→'92년 56%→'95년 72% ○ 자동화투자 확대계획 : '91년 3,221억원→'92년 4,512억원 ○ 현재도 지원자금이 부족, 앞으로 투자 확대에 따라 부족 심화 2. 중소기업의 경우 다른자금에 비해 금리부담이 너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지원자금 금리 : 11% ○ 공업발전기금 금리 : 6.5% ○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 : 0 (출연자금) 3. 자동화 사업에 대한 심사를 전문 기관이 아닌 은행이 하고 있어 지원 절차가 까다로움 (산업은행 지원자금의 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금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도 지원액이 이미 소진단계에 있어 하반기에 당초 지원액의 50%를 증액지원 해주시고 ○ 내년 계획도 금년 지원액의 최소한 40%이상씩 증액이 필요 (자동화 투자액 증가율 수준) 2. 자동화 지원자금의 금리를 현행 11%수준에서 공업발전기금의 금리수준인 6.5%로 인하 3. 자동화 사업에 대한 심사는 전문 기관(예 : 생산성본부)이 하고 은행은 대출만 함으로서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화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는 현재 중소기업으로만 국한하고 있어 투자규모가 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투자유인이 어려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화 정보화 투자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제도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더높게 책정해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높혀나감

항 목	예 로 요 인	대 책 건 의
기술지원	1. 현재 기술지원 기관은 많이있으나 자동화에 대한 기업실정에 맞는 지원기관은 없음	1. 정부가 추진중인 생산성본부의 자동화 시범 공장건설 사업을 조기 완공해 실질적 지원이 요망됨
전문인력 확보지원	1. 자동화에 대한 공공 교육기관 (예 : 생산성본부)이 현재 수강료를 받고 있어 대기업 위주의 교육을 함에따라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더 큰 중소기업 요원의 교육은 곤란 2. 자동화 교육기관의 교육 수준이 낮은 과정만 있고 전문과정은 없어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움	1. 자동화 전문교육 기관(예 : 생산성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요원에 대해서는 무료위탁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신설토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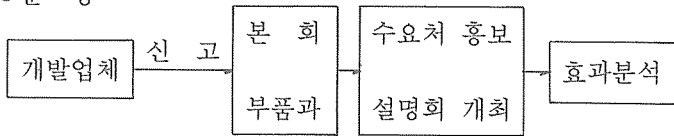
신개발 전자부품 및 소재 신고센터 이용안내

○본회에서는 전자부품 및 소재 업체의 신개발 품목의 세부내용을 확보 수요처에 홍보하여 국산개발품의 사용을 촉진하고 Set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수급업체간의 공익을 도모코자 “신개발 전자부품 및 소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국산신개발 품목으로서 공급가능한 전자부품 및 소재.

○운 영



○개발업체

- 개발품목의 세부내용을 작성 본회에 제출(소정양식)
- 기타 참고자료 제출

○본 회

- 수요처홍보 : 서면 또는 본회 정기간행물 등 이용
- 설명회 : 개발업체와 협의 개최.

※문의처 : 본회 부품산업부 부품과

Tel : 553-0941/7(40, 41)

554-4146(직통)